

단독 주택의 진입 외관에 나타난 주거 아이덴티티*

박 선 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Housing Identity Expressed on Entrance Features in Single Detached Houses

Sun-Hee Park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

Abstract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housing identity expressed on entrance features in Korean single detached hous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ield study and content analysis method of 45 houses in Chonju city. The methods of observation, of measuring the size, of sketching, and of photos of entrance feature in the single detached houses were used for this study.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height and the form both of main gate and of wall tended to be closed. In particular, the size of main gate tended to be shown off rather than having practical function, whereas the form of main gate were semi-opened and thus could not guaranteed privacy of the residents very well. Second, 53.3% of the direction of main entrance were found to be at right-angled with main gate, which reflected the control needs of private life. Third, the balance of main gate and exterior was homogeneous, which expressed the increase of aesthetic concern of exterior. Finally, most of entrance approach were made of stones and bricks.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practical function of entrance approach was emphasized the emotional environment was not considered in building the entrance approach.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학술지원비('99연구기반)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561-756, Korea

Tel : 063-270-3837, Fax : 063-270-3839

E-mail : psh3837@moak.chonbuk.ac.kr

I. 서론

주택외관의 진입 부분은 사회에 속하는 공적영역/속(俗)의 세계에서 사적인 가족영역/성(聖)의 세계로 들어오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완충영역임과 동시에 집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는 표현체이다. 주거 내 진입부분의 시작은 대문이다. 문화에 따라서 대문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한국의 가옥은 예로부터 대문이 중요한 설비였다. 대문은 공적-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상징이다. 또한 대문이 주는 실제적 영역의 경계는 거주자, 이웃, 방문객과 외부인에 대한 행정적, 문화적, 법적, 사회정치적 권리를 표현한다(Lavin, 1981; Lawrence, 1986).

가옥의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어프로치 및 몸체의 출입구는 대문과 일방향의 동선이 형성되어지므로 실내 평면 구성의 기본 요인이자 외부에 대한 단독주거 디자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한국 도시의 단독주택은 대지상의 한정된 특성 및 공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전통 주거와는 매우 다른 진입외관을 갖게 되었다.

공공도로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대문을 비롯한 진입상의 공간구성은 프라이버시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알트만(Altman, 1977)은 바람직한 프라이버시의 수준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행동적 메카니즘의 개념이 문화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 아이덴티티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건축형태와 문화태도간의 기호 전달 구조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아이덴티티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의 진입외관은 새로운 연구 대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연구물들(김정재: 1986, 이장우: 1986, 이광영: 1988, 홍준표: 1988, 김지수: 1994 등)은 건물 자체의 외형에 많이 치중되어 왔다.

주택은 집단 아이덴티티의 비언어적인 표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한 문화와 집단의 상황속에서 주거와 아이덴티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큰 이해와 각각은 인간생활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거 디자인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주택의 진입외관에 나타난 특성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의 방법과 목적

1. 연구 및 조사방법

현지조사방법과 내용분석방법을 병행한다. 주거 외관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프라이버시조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택 진입외관에 대한 관찰 및 크기측정, 스케치, 사진촬영 등을 통한 실증적 자료수집을 한다. 자료분석의 보완을 위하여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형태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수량적 평가와 질적 분석을 병행한다.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의 진입외관의 범위는 대문, 담, 대문에서 실내 출입구에 이르는 진입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거주자가 지닌 사회학적 변인을 배제한 물리적 현상을 놓고 현장 관찰을 통하여 고찰한다. 하나의 단독주택에는 거주자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각 세대의 거주생활에서 나타난 미세한 물리적 변화의 추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축과 같은 신고 대상의 경우에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다. 그러나 일반 주택에서의 대문이나 실내 진입외관은 주변 환경과의 동질성에 따르기 쉽고 그렇게 형성된 외관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구조적 조건이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거의 외관에서 보여지는 보편적 행태는 집단 아이덴티티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주거 아이덴티티의 지표 선정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① 담과 대문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한 프라이버시 조절 특성
- ② 대문과 실내 출입구의 방향에 나타난 2차적 프라이버시 조절 특성
- ③ 주택의 전체외관과 대문외관의 의장적 조화여부에 따른 미적 조절 특성
- ④ 진입로 형태 및 설비에 따른 진입공간의 특성

Ⅲ. 이론적 배경

흠몬(D.M.Hummon)은 주거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여 세가지 구성요소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주거를 통하여 아이덴티티의 상징화와 표현이 가능함을 입증하여 주거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로렌스(1994)는 주택에 대한 개성은 기하학적 공간과 시간에서 뿐만아니라 그들의 목적지향적 행위와 거주자의 주관적 "개인세계"에도 나타나며 주택의 디자인, 의미, 사용방법은 문화적,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의 내-외부공간사이에는 가시성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 출입구의 역할은 공적과 사적 영역사이에서 시각적 접근을 조절하는 기본적 공간 요소로 출입구는 외부에서 묻어온 불결함을 통제하는 공간이며 원치 않는 일로 가정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는 공간적 형태와 의식적 공간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올리 단위주택 주변의 공간과 경계, 실들의 내부구성은 여러 공간들에 대한 상징적 정의와 법적 정의를 나타내 주는 경계로서나 또는 문화적 관습,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관습과 입주자들의 개인적 열망과 목표에 따른 공간들간의 시각성과 접근성을 규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울타리로서 제공됨이 분명하다. 청각적 격리와 시각적 격리를 위한 물리적 울타리로 작용하는 전이공간과 입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하여 과거에는 역사적이고 비교문화적 방법으로 고찰하였으나 오늘날은 다양한 맥락에서의 행동적 분석이나 공간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이 주장되고 있다(Lawrence, 1994). 영국의 주택단지에 대한 한 조사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도로를 향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공적 옥외공간과 입주자 책임의 앞뜰을 포함하는 사적인 옥외공간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Lawrence, 1981)

물리적 요소가 주는 심리적 아이덴티티와의 관계는 프라이버시, 미적조화, 쾌적성을 보는 것이다. 특정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정의는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변인 속에 함축된 의미의 맥락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윌리스는 거리의 정도보다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더 관심을 갖었으며 건물과 도로로부터 들어간 부분간의 최소거리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디자인 지침에 관심을 두었다(Margulis, 1977).

한편 알트만은 프라이버시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수의 변화에 따라 타인에의 접근성과 격리정도가 변하는 것을 포함하는 변증법적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과정, 타인과 적정수준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단조롭지 않은 과정, 바람직한 이상적인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이나 격리의 결여로 인해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실제적인 프라이버시, 개인과 타인들간에 이원적인 방향을 취하므로 받아들이는 것과 보내는 것과의 상호관계의 고려, 개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결합에의 적용이라는 프라이버시의 6가지 차원을 지적하였다(Altman, 1975).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메카니즘에서 주거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관례인 집단 아이덴티티로 나타난다.

집단적 아이덴티티는 개인의 주관적 감각인 내면적 연대로 연결되어 개인이나 사회적 핵심으로 정립되고 뿌리가 박혀가는 과정으로 그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체계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내면적 재구성이나 재통합이 이루어진다(박아청, 1993). 알트만은 이것이 모든 문화에서 발생하지만 문화마다 다른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Altman, 1977)

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전이영역은 공간의 경계와 대인간 접촉을 규제하는 기본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은 완전히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영역들이지만 인공환경의 형태에 공헌할 수 있으며 거주자들의 열망과 목표에 따라 대인간 접촉을 규제하는 행동패턴을 담는 전이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사람과 사물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규제하는데 중요한 공간경계간의 전이공간의 특성이다(Lawrence, 1980).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 주택의 일반 사항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단독주택은 택지조성을 통하여 공급된 일정 규모의 부지와 주택을 지닌 전주시의 2개 지역(M지역, H지역)을 선정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주택에 대한 실측 조사를 한 후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를 하여 본 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을 제외한 총 45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두 지역 주택의 일반적 건축사항은 <표 1>에서와 같이 주택의 조성은 전체적으로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가장 많았는데(51.6%) 특히 M지역의 주택이 '80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이 많았고(77.2%) H지역이 연도별 고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M지역의 주거단지가 H지역에 비하여 일찍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90년 이후에 지어진 최근의 주택은 6채(13.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택의 층고는 2층 구조가 많았는데(77.8%) 그 중 H지역은 95.7%가 M지역은 59.1%가 2층 구조이었다.

<표 1> 조사대상 주택의 일반적 사항

단위: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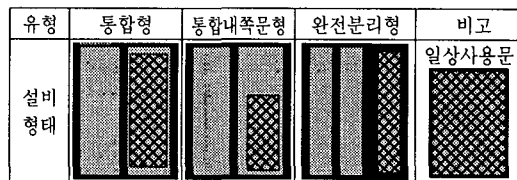
구분	내용	H지역	M지역	계
건축 년도	'80년이전	6(26.1)	17(77.2)	23(51.6)
	'80~'85년	5(21.7)	2(9.1)	7(15.6)
	'86~'90년	8(34.8)	1(4.6)	9(20.0)
	'91년 이후	4(17.4)	2(9.1)	6(13.3)
계		23(100)	22(100)	45(100)
층수	1층	1(4.3)	9(40.9)	10(22.2)
	2층	22(95.7)	13(59.1)	35(77.8)
	계	23(100)	22(100)	45(100)
연면적	100㎡ 미만	1(4.4)	9(40.9)	10(22.2)
	100 이상~ 130㎡ 미만	3(13.0)	7(31.6)	10(22.2)
	130~150㎡	3(13.0)	4(18.2)	7(15.6)
	150~170㎡	4(17.4)	1(4.6)	5(11.1)
	170~190㎡	4(17.4)	1(4.6)	5(11.1)
	190~210㎡	3(13.0)	0(0)	3(6.7)
	210~260㎡	5(21.7)	0(0)	5(11.1)
계	23(100)	22(100)	45(100)	

주거 공간의 연면적을 보면 H지역은 주거 면적의 평형이 다양하게 나타난 데 비하여 M지역은 130㎡(약39평) 미만이 7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중 100㎡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 40.9%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관리

대장에 나타난 신축 이후의 증축이나 개축사항 기록을 보면 대체로 '80년대 이후로 가면서 단독주택의 건축면적이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M지역의 경우 증축건이 7건(31.8%)이나 나타났다.

2. 담과 대문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한 프라이버시 조절 특성

조사지역 주택의 대문 형태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문의 형태는 양여단이 개폐의 큰 대문과 외쪽 여단으로 된 작은 문의 2가지 형태가 어떻게 설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큰 대문의 한 쪽문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통합형의 경우(48.9%), 두 번째 유형은 큰 대문의 한 쪽에 작은 쪽문을 부설한 경우(6.7%), 세 번째 유형은 큰 대문이 있고 옆에 별도의 작은 문을 설비한 완전 분리형의 경우(44.4%)로 나타났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 시대적 추이를 보면 통합형과 완전 분리형은 시대적 변화를 추적할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작은 쪽문의 경우는 모두 신축년대가 오래된 주택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작은문과 대문의 세가지 형태적 유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문의 설비 유형별 형태

한편 대문의 크기 분포와 형태를 보면 큰 대문은 일상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작은 문이나 쪽문이 일상적 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상 출입문은 H지역의 경우 2미터~2.5미터가 가장 많아(65.2%) 출입 크기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지역의 경우 1~1.5미터가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나 사람의 표준 키보다 낮게 형성되어 출입시의 행동 장애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이에 비하여 비상사적인 큰 대문은 H지역의 경우 폭 2~2.5미터가 69.6%, 2.5~3미터가 17.4%로, 높이가 2미터

〈표 2〉 대문의 사용 형태별 차이

단위: f(%)

유형	H지역	M지역	계
통합형	6(26.1)	16(72.7)	22(48.9)
통합내쪽문형	0(0)	3(13.6)	3(6.7)
완전분리형	17(73.9)	3(13.6)	20(44.4)
계	23(100)	22(100)	45(100)

이상인 형태가 78.3%로 나타나 실제적 기능보다는 과시적 형태의 크기로 설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M지역의 경우는 폭도 1.5~2미터 미만의 것이 63.6%, 높이도 2미터 미만이 86.4%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대문의 폭이 2m 이상이라는 넓이의 기능적 측면은 차의 진입이나 이사시 물건이동의 용이함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문 앞에는 인도와 차별된 높은 턱이 구성되어 자동차의 진입이나 주거 내 주차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대문의 형태가 기능적 활용성과는 달리 거주자의 진입 외관에 대한 주거의 정체성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대문이라는 안과 밖의 상징적 경계를 물리적으로 확대하여 주지시키려는 심리적 측면이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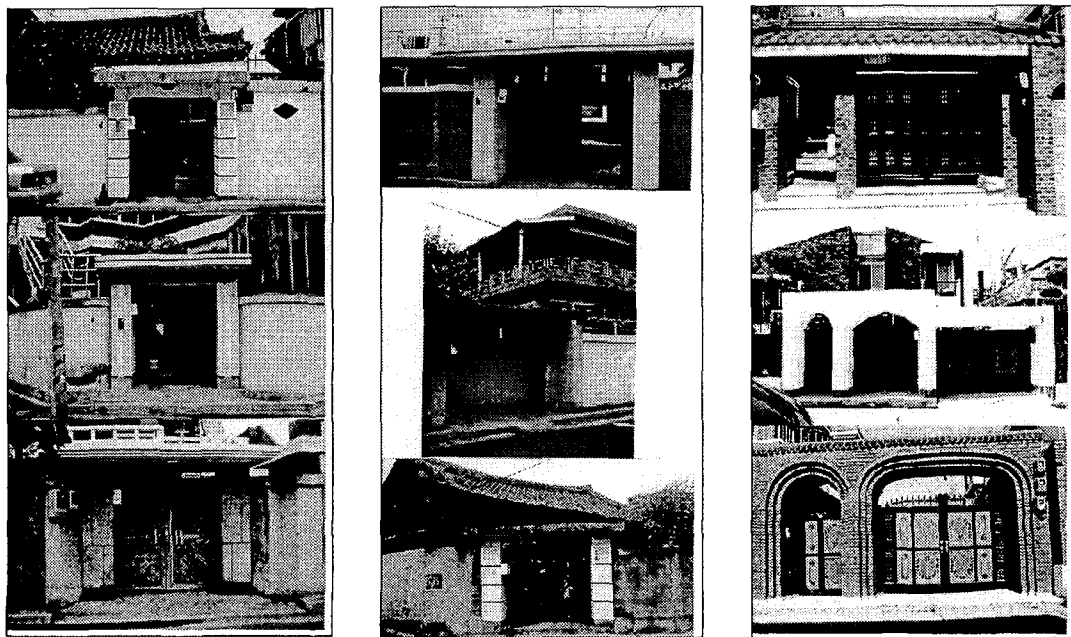
〈표 3〉 대문과 담의 크기

단위: f(%)

항목 및 내용		H지역	M지역	계	
작은문	폭	1m미만	18(78.3)	21(95.5)	39(86.7)
		1~1.5m미만	4(21.7)	1(4.5)	6(13.3)
	높이	1~1.5	2(8.7)	10(45.5)	12(26.7)
		1.5~2.0	6(26.1)	12(54.5)	18(40)
이	2~2.5	14(65.2)	0	15(33.3)	
	1~1.5	0(0)	6(27.3)	6(13.3)	
대문	폭	1.5~2.0	3(13.0)	14(63.6)	17(37.8)
		2.0~2.5	16(69.6)	1(4.5)	17(37.8)
		2.5~3.0	4(17.4)	1(4.5)	5(11.1)
		높이	1.5~2.0	5(21.7)	19(86.4)
이	2.0~2.5	18(78.3)	3(13.6)	21(46.7)	
	1m 미만	0(0)	0(0)	0(0)	
담높이	1~1.5	0(0)	1(4.5)	1(22.0)	
	1.5~2.0	10(43.5)	6(27.3)	16(35.6)	
	2.0~2.5	11(47.8)	11(50.0)	22(48.9)	
	2.5~3.0	2(8.7)	4(18.2)	6(13.3)	
	각항목별 총계	23(100)	22(100)	45(100)	

있다.

한편 담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2~2.5미터가 53.3%로



〈그림 2〉 대문의 유형(통합형-통합내쪽문형-분리형)

나타나 절반 이상이 일반적 시계의 높이를 훨씬 상회하므로써 밖의 공적 공간에 대한 안의 내부영역에 대한 확보 및 한국인들의 주거에 대한 방어적 경계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로렌스의 서구권 조사와는 달리 한국의 단독주택은 공적 영역/사적영역 사이의 완충공간으로서의 전이공간에 대한 인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안과 밖의 물리적 구분을 명확히 한정시키고 폐쇄적으로 내부를 감싸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경우 주택의 담장이 낮아 시각적으로 외부와 단절이 안되어 있고 대문도 설치되지 않거나 시각적 영역만 표시할 정도의 이주 낮고 단순한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대조적이다(김낙춘,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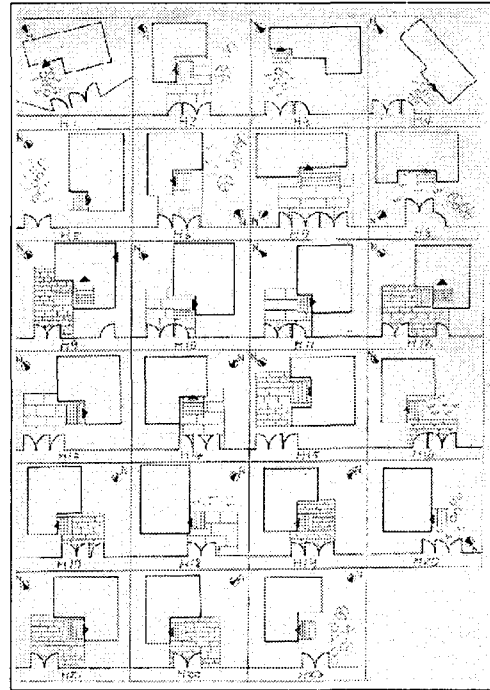
그러나 대문이나 담의 폐쇄적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개방적 성향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대문의 형태에 나타난 부분적 개방성이다. 즉, <표 4>에 나타난 대문의 재료와 개방 형태의 조절 정도를 보면 60%가 반개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주거의 내부 영역이 엿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특히 M지역이 59.1%가 폐쇄형인데 비하여 H지역의 경우 78.3%가 반개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외부인에 대한 내부 영역의 폐쇄성에 대하여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대문의 재료와 개방 형태의 특성
 단위: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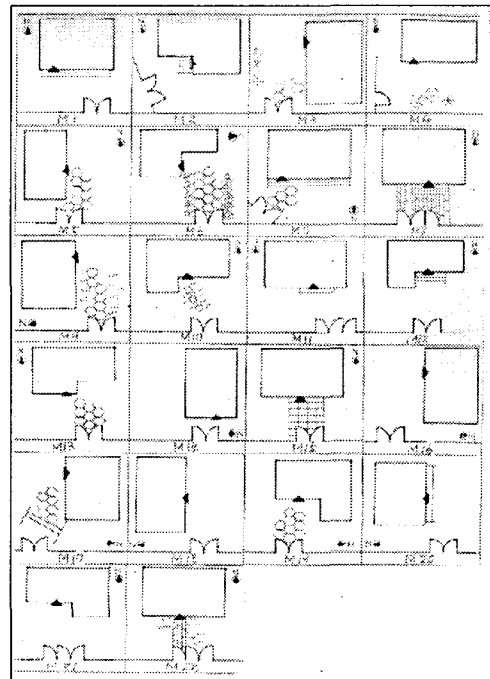
	내 용	H지역	M지역	계
대문재료	목 재	3(13.0)	2(9.1)	5(11.1)
	철 재	17(73.9)	18(81.8)	35(77.8)
	스테인리스	3(13.0)	1(4.5)	4(8.9)
	동	0(0)	1(4.5)	1(2.2)
계		23(100)	22(100)	45(100)
대문의 개방형태	반개방	18(78.3)	9(40.9)	27(60.0)
	폐쇄	5(21.7)	13(59.1)	18(40.0)
	계	23(100)	22(100)	45(100)

3. 대문과 실내 출입구의 방향에 나타난 2차적 프라이버시 조절 특성

두 지역의 대문과 배치도에 나타난 실내 출입구와의 방향은 그림과 같다.



H지역



M지역

<그림 2> H지역과 M지역 주택의 평면으로 본
 진입 현황

대문과 같은 방향인 병렬유형(42.2%)에 비하여 대문의 방향과 직각으로 깎여서 실내에 출입하는 경우(53.3%)가 많이 나타나 프라이버시의 2차적 조절 욕구가 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H지역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65.2%) 2차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의 상승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0년 후반에 지어진 집들의 시대적 추이변화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대문을 들어선 이후의 실내에 진입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2차조절 요구는 아직은 시대적 경향과 관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대문을 경계로 한 내부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 조절 요구의 가치가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대문을 경계로 한 내부에서의 뜰이나 실내 영역에 대한 부지 전체의 내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대문과 실내 출입구의 방향에 나타난 2차적 프라이버시 조절 정도

단위: f(%)

	H지역	M지역	계
병렬유형	7(30.4)	12(54.6)	19(42.2)
직각유형	15(65.2)	9(40.9)	24(53.3)
기 타	1(4.4)	1(4.6)	2(4.4)
계	23(100)	22(100)	45(100)

4. 주택의 전체외관과 대문외관의 의장적 조화여부에 따른 미적 조절 특성

주택지붕의 형태와 벽체 재료면에서 대문의 지붕과 대문기둥을 중심으로 한 외관의 통일성 여부를 관찰하였다. 전체적으로 64.4%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M지역의 경우 전형 동일하지 않은 주택이 27.3%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초기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가 많아 집은 한옥 목조에 대문은 시멘트 슬라브 형태로 지어 외관상 아주 이질적 형태를 지닌 집들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후대로 올수록 점차 동일한 경향으로 분포되어 가고 있어 외관에 대한 미적 고려에 대한 표현이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재료와 형태적 측면의 동일여부

단위: f(%)

	H지역	M지역	계
동 일	18(78.3)	11(50.0)	29(64.4)
일부동일	5(21.7)	5(22.7)	10(22.2)
비 동 일	0(0)	6(27.3)	6(13.3)
계	23(100)	22(100)	45(100)

5. 어프로치 형태 및 설비에 따른 진입 접근성 정도

H지역이나 M지역 모두 돌이나 벽돌 등을 사용하여(63.3%) 진입로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 M지역의 경우는 초기의 일률적 시멘트 마감도 38.5%로 나타나 정서적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지역 중 잔디를 식재하여 정돈된 그린환경을 추구한 세대도 13세대(23.2%)로 나타났다.

〈표 8〉 진입로의 바닥 재료

단위: f(%)

재료	잔 디	시멘트	대리석	돌, 벽돌	계
H지역	9(30.0)	0(0)	2(6.7)	19(63.3)	30(100)
M지역	4(15.4)	10(38.5)	1(3.8)	11(42.3)	26(100)
계	13(23.2)	10(17.9)	3(5.4)	30(53.6)	56(100)

V. 결 론

단독주택의 진입외관에 대한 전주시 2개 지역의 조사 결과와 고찰을 토대로 주거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과 대문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한 프라이버시 조절 특성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사회적 외부영역에 대한 방어와 차단의식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대문과 실내 출입구의 방향에 나타난 2차적 프라이버시 조절에 대한 요구는 본 조사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나 점차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었다. 셋째, 주택의 전체외관과 대문외관의 의장적 조화 여부에 따른 미적 조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진입로 형태 및 설비에 따른 공간

의 특성은 전반적인 진입 외관 중 가장 특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미적, 정서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나 의식이 낮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에 나타난 두 지역의 주거 아이덴티티는 시대적 추이나 건축주의 디자인 관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국인들의 외부/내부 경계에 대한 집단별 강한 폐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률적이고 한정적인 영역 경계의 표현을 동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택의 진입외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참고 문헌

1. 김낙춘, 조중근(1999). 청주시 개신동 단독주택지의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0(1): 1-10
2. 박아청(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교육과학사
3. 이희봉외(1991).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거형태 설계를 위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 143-153
4. 이정근(1988). 생활공간의 경락구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3): 125-130
5. 안경환(1986). 단독주거 설계에서의 영역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97-103
6. 주중원(1986). 한국적 주택단지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월호: 71-79
7. 최무혁 외(1988). 건축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5): 17-26
8. R.J. Lawrence 저, 이연숙 외 공역(1999). *주택·주거·집*. 서울: 태림문화사
9. R.J. Lawrence(1994). 인류학적 개념의 건축디자인실무에의 적용. *주거문화연구학회, 주거·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
10. Sidney Brower(1994). 거주자와 외부인의 환경지각. *ibid*
11. D.M. Hummon(1994). 현대 미국문화의 주택, 주거, 아이덴티티. *ibid*
12. Duncan, J. S.(1976). Housing as a presentation of self and structure of social networks. *In Environmental knowing*. Stroudsburg
13.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N.Y.: Double Dday, Anchor Books
14. Hirsh, Eli(1982). *The concept of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 Kilpatrick, William k.(1975). *Identity and intimacy*. A Delta Book
16. Klapp, O.(1969). *Collectiv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7. Rapoport, A.(1982). *Identity and environment, Housing and Identity*. New York: Holmes and Meier